

가치관의 혼돈

The Chaos of Sense of the Values.

김 은 태 · 한국자동차공학회 사무국장

Eun-Tae Kim · KSAE General Secretary

1.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왜 우리나라는 둘로 나누어져 있어? 그건 말이야 옛날에 김일성과 공산당들이 정권을 잡고 땅을 빼앗기 위해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싸움을 하여 그렇게 된 거야. 그럼 나쁜 사람들이네. 그럼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 그런데 지난번 TV를 보니까 고향방문단으로 남쪽에 온 북한 사람은 큰 소리 치며 김정일 장군만세를 외치는데 우리사람은 북한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던데...

2. 중학생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다. 정말로 북한이 우리보다 나쁜 나라인가요? 아니 이 녀석아, 너는 아직 그런 것도 모르냐. 아니 아빠, 우리가 보낸 비전향 장기수는 북한에 돌아가서 영웅대접을 받았다던데, 북한을 탈출하여 우리나라로 오겠다는 사람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해 중국을 떠돌고 있고, 또 재수종게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가 자기 부인을 구하기 위해 다시 북한에 다시 갔다가 잡혀서 총살당했는데, 우리정부에서는 가족에게 남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게 하고 지급하던 연금도 중단시켰다고 그러던데...

3. 고등학생이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독도가 진짜 우리 땅이야? 이 녀석이 지금정신이 있나, 없나,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런데 일본정부와 사람들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하고 언론만 떠들지 정부는 아무런 성명도 없던데? 그건 우리정부의 입장이 속주주의를 원칙으로 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려는 입장에서 그런 거지. 그렇지만 아버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도 못하는 것이 어디 있어, 진짜 내 것이면 남이 탄소리하면 혼내주어야지. 외국 지도에는 다께 시마라고 표기된 것도 있다던데...

4. 대학생 아들이 입에 술 냄새를 풍기며 저녁 늦게 들

어와 아빠에게 물었다. 아버지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도대체 저의 가슴속 흰 도화지위에 인생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적성에 맞는 것을 전공으로 선택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졸업 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두려워져요. 대학공부가 취직공부가 아닐진대, 4년 간 취업공부만 하여도 취업이 될지도 모르고 설사 취업을 하였다 하여도 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무엇이 가치 있고 성공적인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아버지는 50평생 직장생활을 했어도 우리는 강북의 30평 아파트에 겨우 살고, 제 등록금을 걱정하는데 봉급장이 한번 안한 정치인들도 대부분 부자로 살고, 장차관 봉급은 벤처기업가만도 못하던데 정부에 신고하는 재산은 왜 그렇게들 많죠? 왜 아버지는 정치인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반공을 국시로 배워왔고, 국산품을 애용하고, 가족을 위해 흘린 땀이 진정 중요하고, 나를 희생하여도 조국과 우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질서를 지키며 올바르게 정직하게 더불어 사는 것이 부와 지위와 권력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있는 것인 것을 알고 살아왔는데 IMF와 정부의 어둡한 정책,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나를 혼란시키고 삶을 흔들고 있다. 무엇이 삶의 가치고 무엇이 존재의 가치인지, 이 혼돈스런 세상에 나의 정체는 어디있는지, 지금도 지나가는 노란 머리를 쳐다보며 혼돈 속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확실한 원칙과 기준이 아닐까 한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쯤 깨우칠 수 있을까?

〈김은태 사무국장 : ksae1@ksae.org〉